불심 현장

부처님오신날 특집

"아침-저녁 점호 예불로"

태풍부대 화랑불교중대 탐방

불심(佛心)의 전우애로 맺어진 부대가 있다. 매일 아침에 불로 하루를 열고 저녁예불로 일과를 마감하는 경기도 연천군 무적 태풍부대의 '화랑불교중대'가 바로 그곳. 부대에 들어서자 마자 '봉축 부처님 오신날'이라는 현수막이 휘날린다. 또 병영안이 온통 연등으로 화사하게 장식돼 있어 이곳이 '불군정토(佛軍淨土)'라는 생각이 든다.

김기태 중대장을 비롯 윤종식 증위 정영길상사 인완식중사가 이끄는 화랑불교중대는 박형규병장이하 70여명의 중대원이 똘똘뭉쳐 74년 창설이래 24년 무사고를 자랑하고 있다.

법당앞에는 '화랑불교중대' '호국불심당'이라는 현판이 선명하고 행정반에 들어서니 벽에 '불심' '마음다스리는 글' 등이 다양하게 걸려있다. 향내음나는 내무반 곳곳에 卍자 표시와 법구등이 즐비하다. 이 중대는 전군 유일의 불교중대답게 청담스님이 명명한 화랑불교중대라는 명칭에서 생활까지 불교로 시작돼 불교로 끝난다.

화랑불교중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간혹 잘못하여 군기교육을 받아야 할 때도 법당에서 부처님이 용서해줬다고 느낄때까지 참회한다. 또 마음이 우울한 사병은 언제라도 법당에 달려가 정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용납돼 있어 장병들의 표정이 밝다.

부대이름에 걸맞게 중대장 선임하사 소대장들 모두가 불심돈독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윤종식증위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불교중대에 오면서 개종했고 정상길상사와 인완식중사는 생일도 초파일날이다. 정상길상사는 "어머님이 해인사초파일 법회에 참석했다가 태어났다"며 "무엇보다도 불심으로 하나되어 뭉친 사병들과의 생활이 좋아 12년을 불교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종병 박형규병장은 "불교라는 구심점이 있어선지 다른 중대보다 의기투합이 잘된다"며 "그렇지만 법회참석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자율적이다"고 말했다. 단지 다른 중대에 배타적으로 보일까 항상 주의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군인상은 중대를 창설한 신말업장군(예비역대장). 신말업장군은 95년에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초파일날 찾아와 장병들을 위문하기도 했다. 장병들은 군생활중에도 매일 1백8배정진했던 신말업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는다. 장병들은 "요즘세상에 4성장군으로 참모총장까지 역임하고도 물러나 조용하게 사시는 신말업장군같은 분이 있느냐"며 "장군님을 뵐 때마다 중대원으로서 자부심이 커진다"고 입을 모은다. 또 장교들과 선임하사들도 역대 지휘관들과 아직도 왕래가 잘될 정도로 끈끈한 정이 통한다며 '훈시문'으로 군부대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신말업장군의 군인정신을 본받겠다고 밝힌다.

천주교신자인 대대장 강병주 중령은 부대훈련을 앞두고 '부처님 생신이 불교중대의 생일이니 초파일 행사를 갖도록하라'며 앞당겨 하루일과를 할애해줬다. 그래서 6일에는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을 모시고 중대장이하 전 중대원이 모여 30여평 남짓한 법당에서 초파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우렁찬 찬불가와 반야심경 봉독은 음의 고저가 통일돼 있다. 법회에서 동광스님은 "군생활중에도 훌륭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진다"며 "불심이 스며있는 화랑정신으로 나보다 남을 위한 마음을 밝히는 모범군인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어 김기태 중대장은 "24년의 호국불교중대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불심을 하나로 모아 무사고의 전통을 이어가고 불교포교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화랑불교중대는 불력으로 군정신력 강화를 통해 부대 단결력을 배양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73년 8월 8일 독실한 불자인 신말업 대대장이 재임시 창설했다. 원래는 천주교와 기독교중대도 함께 창설했으나 모두 없어지고 불교중대만 남아있다.

강병주대대장은 "불교중대의 빛나는 전통을 부대 지휘관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중대전통이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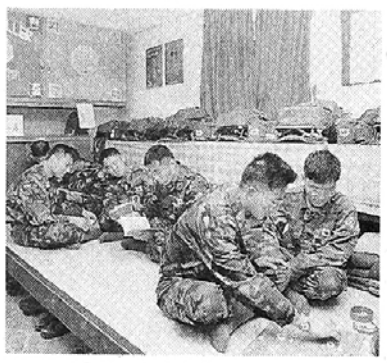
그동안 매년 창립기념법회와 함께 열리는 23차례의 진중합동 수계식을 통해 장교 3백여명 사병 6천여명을 배출한 불교중대는 불교지도자 강연, 무사고 안전기원법회, 위문법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1975년에는 강석천병사등 중대원들의 공동조각작품 '석조아미타여래좌상'으로 불교미술대전에 출전해 종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교중대의 발전을 위해 도선사 보성사 화장사 자재암 동두천사암연합회의 지원이 있었으며 특히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은 "불교중대법당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처님 가르침인 국가관과 화합을 군인정신으로 삼고있는 불교중대는 통일을 앞당기고 있었다.

연천=김원우 기자

◇전국 유일의 화랑불교중대는 74년 창설이래 24년 무사고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6일 초파일기념법회이후 도선사주지 동광스님 대대장 강병주중령 김기태중대장 등과 70여명의 중대원들이 불교중대의 발전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대 위병소에 내걸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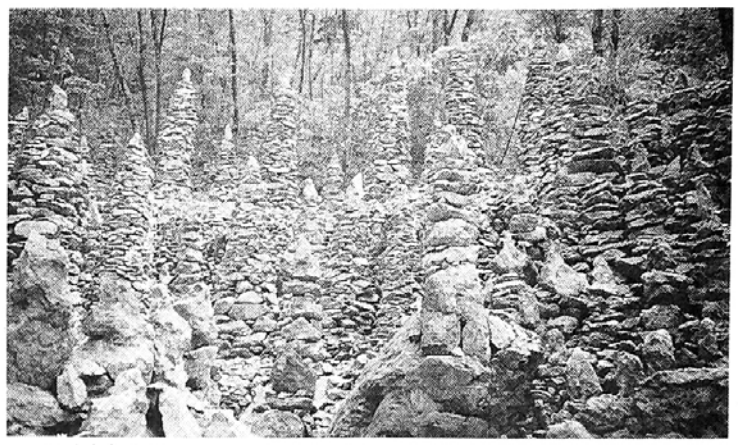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불교중대 내무반은 항상 화기애애하다.

중대원 70명 모두 불자 '佛軍淨土'

내무반 곳곳 卍자·법구등 즐비

군기교육도 법당서 참회수행



◇마산시 양덕3동 팔용산 먼등골 중턱에는 무려 643기의 돌탑들이 능선을 따라 빼곡히 들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있다.

마산 팔용산에 가면

돌탑도량 '장엄'

'오늘의 김대성' 이삼룡씨 4년동안 643기 조성

한사람의 원력이 무려 643기의 돌탑들을 세우고, 능선을 따라 빼곡히 들어선 그 돌탑들이 하나의 도량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다. 마산시 회원구 양덕3동 해발 328m의 팔용산 먼등골 중턱에 위치한 이 돌탑들은 이삼룡(49·마산시청 위생계장)씨가 93년 3월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쌓아온 수행의 산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이 돌탑들의 꼭대기를 장식하는 돌이 아기동자상, 부처님상, 신선상 등 각기 다양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

이곳에 오르면 탑체에 드리운 그늘같은 청정한 기운속에 다람쥐와 청솔모, 까치등이 탑을 오르내리고 바람이 탑 사이사이를 넘나들며 오는 이를 반긴다. 높이 0.5m에서 부터 6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돌탑들은 이씨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산에 올라 약수터 청정수로 얼굴을 씻고 산정상의 돌을 질통으로 져 내리기를 두세번씩 반복하며 모은 돌로 쌓은 것이다. 큰 돌탑 하나를 쌓기 위해서는 꼬박 한달간 돌짐을 지고 오르내려야 한다.

"불심이 깊으셨던 어머니께서 절을 조성하는 것을 소원하시다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찌나 가슴이 아팠던지 돌 하나 하나가 어머니 영가를 위로하는 다리라고 여기며 탑을 쌓았습니다."

신라 김대성이 어머니를 위해 불국사를 세웠듯 이삼룡씨는 돌탑을 쌓았던 것이다. 자신 비록 출가해 수도는 못해도 또 사찰불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돌탑을 쌓아 도량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는 천탑 조성을 목표로 중생들의 업장소멸과 통일염원을 모아 돌탑 쌓기에 한층 더 마음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돌탑들은 그만의 원이 아니라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돌 하나씩이라도 쌓고 있어 모든이들의 불사가 되고 있다.

그는 돌탑쌓기 뿐 아니라 10년째 이곳의 다람쥐, 청솔모, 까치들에게 먹이를 주어 거두고 있으며 하산할 때는 산에 버려진 담배꽁초까지 수거하고 있다.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가꾸고 있는 것이다.

이삼룡씨는 돌탑쌓기를 통해 깨친 지혜 한가지를 일러준다. "탑은 사회와 같습니다. 큰 돌은 밑에서 받쳐주어야 하고 작은 돌은 위로 올라가야 하고 또 자갈들은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조화가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지요." 조화롭고 하나된 세상은 거지든, 사장이든 모두를 부처로 존중해 주는 것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가 세상에 무주상보시한 '탑사(塔寺)'를 다시 되돌아 보았다.

◇93년부터 돌탑을 쌓아온 이삼룡씨.

새벽마다 천탑불사 돌짐 나르며

통일염원·어머니 영가 위로

"크고 작은 돌의 조화 배워요"

마산=천미희 기자

2541 부처님 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천진선원
(사)감로심장회 (이사장 권한대행)
주지 보운
사부대중일동
▶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
전화 : 0591-745-0522

한국역술연구원 **성운철학관**
(사)감로심장회 (이사)
여광동
▶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450-29
전화 : 0591-42-9380

송원사
(사) 감로심장회 (이사)
주지 송월
사부대중일동
▶ 경남 진주시 옥봉남동 878
전화 : 0591-745-2038

제일불교서림
불상·단청·개금·범종·불교서적
4.8용품·신년달력외 불교용품 일체
대표 신홍주
▶ 경남 진주시 평안동 188 (진주MBC앞)
전화 : 0591-41-5832

약천사
(사) 감로심장회 하동지부
주지 적령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신촌
전화 : 0595-63-5311

대한불교 조계종 **선원사**
조실 선산
주지 성원
신도회장 조원태
배발심화
신도회일동
•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1-1
전화 : 032-934-8484
933-8834
933-8236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사**
주지 원종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전화 : 032-933-8271~3
FAX : 032-933-8278

대한불교 조계종 **마하연포교원**
금강불교대학
주지 일지
신도회 거사림회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42-69
전화 : 032-523-9911
FAX : 032-511-6194

동양한의원
원장 최종백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95-1
전화 : 0391-43-7575